

[예배모범] 설날가정예배

복 있는 사람

찬양	왕이신 나의 하나님 (메들리 162장).....	다같이
	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(메들리 162장)	
	두손들고 찬양합니다 (메들리 140장)	
기도		말은이
성경봉독	시 1:1~6	다같이
말씀	복있는 사람	말은이
나눔	비전과 기도	다같이
찬송	찬 447장	다같이
주기도문		다같이

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시편의 맨 처음에 놓여 있습니다. 그것은 이 시가 노래하고 있는 내용을 생각해 볼 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. 그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이 시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노래하기 때문입니다.

사람들의 근본적인 필요와 찾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? 그것은 행복입니다.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찾아다닙니다.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우선적인 관심사입니다. 시편 1편은 바로 그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시편의 맨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새해를 맞는 설날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여기서 우리는 참 행복을 배우기 때문입니다.

시편 1편은 ‘복 있는 사람’이 누구인가를 하나의 그림처럼 보여줍니다. ‘복 있는 사람은...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.’ 여기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. 그런데 만일 그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면 그 나무에게는 모든 일이 다 잘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. 복 있는 사람이 그와 같습니다. 복 있는 사람은 이 나무처럼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사람입니다. 그렇지만 이것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현상적이고 결과적인 설명일 뿐입니다. 복 있는 사람에게는 보다 깊고 내면적인 특성이 있습니다. 성경은 이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.

3절을 보면 이 시에 묘사된 나무가 ‘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’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. 그것은 그 나무가 ‘시냇가에 심은 나무’이기 때문입니다. 마찬가지로 복 있는 사람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것도 이유는 하나입니다. 그 이유는 그가 ‘오직 여호와와 더불어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’이기 때문입니다. 행복이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일차적으로 그리고 내면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갖는 사람입니다. 그리고 그 결과 모든 것이 형통하는

일이 따라오는 사람입니다.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.

그러므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행복을 추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.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말합니다.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행복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. 왜냐하면 참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

마지막 절은 그 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“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.” 인생이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.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행복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. 그 때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.

*** 출처 : 온 누 리 신 문**